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1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토착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 - 12월호 p152		친환경연구과	농경과원에
○ 올해산 국내육성 골드키위 ‘한라스위트’ 첫 수출-12월호 p145		감귤아열대연구과	월간원에
○ 농촌관광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 효과 높아-12월호 p133		기술지원조정과	월간친환경
○ 제주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12월호 p69		기술지원조정과	팜앤마켓
○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12월호 p152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경과원에
○ ‘올리브’ 농가 실증 및 지역별 환경 적응성 검토-12월호 p147		서부농업기술센터	월간원에
○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3 제주감귤박람회’ 개최-12월호 p46~p47		제주감귤박람회	월간새농사
○ 허철훈 농가 감귤품평회 대상 영예-12월호 p139		제주감귤박람회	월간새농사
○ 소통·화합으로 미래대응 역량 키워-8면 (23.12.4.)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여성신문
○ 서귀포농기센터 공급 미생물 4종 효과 톡톡-3면(23.12.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신문
○ 감귤 소비촉진 이끄는 감귤박람회 성황-7면 (23.12.6.)		제주감귤박람회	서귀포신문
○ 실증 재배 채소로 장아찌 나누다-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14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 역대급 오차에 대책 시급-1면		-	제주매일
○ 감귤박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촉각-3면		-	제민일보
○ 월동채소 가격 하락 지속 우려 道,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나서-6면		-	제주일보
○ 농업 생산자와 식품기업 동반성장 성과-3면		-	제주일보
○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감귤산업-15면		-	제민일보

(농경과원예: 2023년 12월호)

○ 토착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 -p152

제주도농업기술원

토착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토착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최근 농업적으로 기능이 우수한 미생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농약·비료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균주 선발과 농업적 효과 검토를 거쳐 시제품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 제주 지역의 토착 미생물 균주 60종 중 농업적 효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3종의

우수 균주를 선발했으며, 선발된 우수 균주는 유기물 분해능, 인산 가용화능이 우수해 작물 생육촉진 효과와 함께 항균 활성이 우수해 감귤 병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실용화를 위한 선발균주 대량 배양과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감귤 등 작물의 생육 촉진과 병해 방제효과를 검토하며 농경과원예
친환경연구과 T 12월호 152

(월간원예: 2023년 12월호)

○ 올해산 국내육성 골드키위 ‘한라스위트’ 첫 수출-p145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올해산 국내육성 골드키위 ‘한라스위트’ 첫 수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주시농업인에서 2023년산 국내육성 골드키위 ‘한라스위트’ 대만 수출 상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 상차식은 지난달 21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주시농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수출하는 국내 육성 ‘한라스위트’ 골드키위는 21일 대만에 시범 수출된 5t과 23일 일본 수출 물량 20t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 골드키위를 포함한 제주산 그린키위, 레드키위는 7개국 200t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5개국 171t 첫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개국에 146t을 수출했다.

양원석 아열대과수연구팀장은 “제주산 키위 수출 거점 농가를 육성하고 수출국의 키위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신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주키위가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잡도록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고 수출국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전국의 9개 생산자단체와 7개 수출업체는 농업회사법인 한라키위수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월간원예
12월호 145

(월간친환경: 2023년 12월호)

○ 농촌관광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 효과 높아-12월호 p133

농촌관광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 효과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원하늘농장(대표 강성훈)과 함께 농촌관광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 '나의 케렌시아를 찾아서'를 운영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촌관광분야 치유농업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치유농장, 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치유농장으로 프로그램 이전 및 맞춤화 컨설팅을 거쳐 운영된다. 제원하늘농장의 '나의 케렌시아를 찾아서'는 성인의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과 대인돌봄 증대를 통한 휴식치유를 지향하며 1박 2일 동안 △푸드아트 테라피 △팜파티 △싱잉볼 소리테라피 등을 진행한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전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SES) △회복경험 인식 척도를 조사했다. 측정 결과 △스트레스는 25.6% 감소 △자아존중감은 5.4% 증가 △회복경험 인식은 95.9% 증가하는 등 치유농업프로그램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회복의 효과를 확인했다. 



고상환 원장은 "다양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모든 계층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간친환경 12월호 133**

(팜앤마켓: 2023년 12월호)

○ 제주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p69

제주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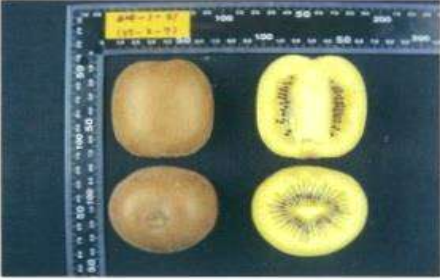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달 24일 본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농업인 유형별(신규농, 승계농 등) 지식, 경험, 정보 공유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도내 청년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사례발표와 팀 활동을 진행했다. 사례발표는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4개의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참가한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교육)에 참여한 계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사업 참여 후 본인에게 적용한 사례 등을 직접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 팀 활동은 청년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팜앤마켓 12월호 69**

(농경과원에: 2023년 12월호)

○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p152

동부농업기술센터 |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익)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개최한 '2023년 스마트강소농 우수사례 경진'과 '농업기술보급 혁신 우수사례 경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스마트강소농 우수사례 및 농업기술보급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강소농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과정 운영, 자율모임체 구성 등을 추진했고 △농업기술보급 혁신을 위해 국내 육성 키위 '감황' 도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품종의 현장 확산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농업-스마트경영-스마트마케팅 3단계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업인 스스로 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팜 운영, 고객데이터 관리, 농업경영 진단 및 사업전략 구상 등이 가능하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농경과원에
동부농업기술센터 12월호 152 | 2

(월간원에: 2023년 12월호)

○ '올리브' 농가 실증 및 지역별 환경적응성 검토-p147

서부농업기술센터

'올리브' 농가 실증 및 지역별 환경적응성 검토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리브 재배 농가 실증을 통해 재배상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 관리를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2021~2024년 동안 공동연구과제 '제주지역 올리브 농가 현장실증 연구 및 환경적응성 검토'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지역 3농가와 함께 실증포 0.5ha를 조성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올리브 노지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 및 척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등을 정립할 예정이다.



월간원에
12월호 147

(월간새농사: 2023년 12월호)

○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3 제주감귤박람회’ 개최-p46~p47

원장칼럼 7



46 월간새농사 12월

월간새농사
12월호 4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감귤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2023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국내 단일 과일 품목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감귤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감귤 멀티플렉스관 ▲전통·자동화 농기계를 비롯해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8개의 전시관, 200여 개의 전시, 체험, 홍보, 판매부스가 운영된다.

체험으로는 인기 프로그램인 감귤따기를 포함해 총 8종이 운영되며, 인생 네 컷 포토부스와 감귤 소품 포토존도 상시 운영한다.

버스킹과 비눗방울 공연, 마술공연 등과 감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감귤 경매, 조선시대 황갑제 재현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농협 조합원 감귤 따기 대회와 더불어 어린이 사생대회 및 꿀빛가요제 등도 열린다.

매년 좋은 계약성과를 보여 농가와 업체의 호응을 얻는 바이어 상담회도 준비돼 있다. 감귤아열대과수학회 심포지엄, 전국 과실 중도매인 컨퍼런스, 최연구 교수의 '문화경제 트렌드와 제주감귤' 특강, 감귤 명인 강연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장은 기존의 '온누리' 외에 '재래감귤'을 활용한 캐릭터들을 개발해 회장 곳곳에 이를 활용한 포토존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감귤키즈 놀이터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곳곳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는 감귤품평회 수상 감귤과 '하레조생', '윈터프린스' 등 국내산 신품종 감귤을 시식할 수 있으며, 젊은 층을 겨냥한 감귤카테일 경연대회와 감귤 하이볼 카테일 만들기 체험 등도 마련했다.

제주 감귤농가와 소상공인 동반성장 상생 프로젝트인 '감귤세일페스타' 캠페인도 12월 1일부터 10일간 열린다. 도내 감귤농가와 소상공인 업체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하면 영수증 이벤트 응모 및 추첨을 통해 400여 명에게 해외항공권 2매, 1년 무료감귤시식권 등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간새농사
12월호 47

농업전문지 47

(월간새농사: 2023년 12월호)

○ 허철훈 농가 감귤품평회 대상 영예-p139

제주특별자치도

허철훈 농가 감귤품평회 대상 영예

올해 제주감귤품평회 영예의 대상은 제주시 삼양동 허철훈 농가가 받았다.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는 11월 9일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백성익)와 공동주관한 '2023 제주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대상 및 품목별 금·은·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영예의 대상은 허철훈 농가('하례조생', 파복재배)가 차지했다. 극조생 품목은 ▲은상 김대운(서귀포시 대포동) ▲동상 현동훈(서귀포시 남원읍) 농가가 뽑혔다.

조생(노지 및 파복재배) 품목은 ▲금상 조기철(서귀포시 남원읍) ▲은상 한정숙(서귀포시 신흥동)·오태인(서귀포시 남



원읍) ▲동상 최창석(서귀포시 남원읍)·오기택(서귀포시 대포동) 농가가 각각 수상했다.

친환경 품목에서는 ▲금상 김효준(서귀포시 남원읍)·이성호(서귀포시 호근동) ▲동상 윤동현(서귀포시 성산읍) 농가가 선정됐다.

월간새농사
12월호 139

(농촌여성신문: 2023년 12월 4일)

○ 소통·화합으로 미래대응 역량 키워-8면

소통·화합으로 미래대응 역량 키워

제주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달 24일 본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농업인 신규농, 승계농 등 참여해 유형별 지식,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사례를 발표

하고 팀 활동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 시간에는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4개의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참가한 청년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한 계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사업 참여 후 본인에게 적용한 사례 등을 직접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팀 활동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또 과제 실현의 위험요인과 극복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역량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뒀다.

| 김정자 기자 | 12.4. naver.com

농촌여성신문 8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4일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업인신문: 2023년 12월 4일)

○ 서귀포농기센터 공급 미생물 4종 효과 톡톡-3면

서귀포농기센터 공급 미생물 4종 효과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기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이 사용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귀포농기센터는 지난해까지 제주농기센터와 동부농기센터에서 생산한 농업미생물을 매년 50톤씩 내외 수령해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해 농업인들의 아쉬움이 컸는데,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해 농업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해 12월 준공

했다. 올해 4월부터는 미생물배양실에서 자체 생산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기 시작해 651개 농가에 73.9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급된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4종으로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을 준수하고 대장균 등 해로운 미생물 검출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히 검사한 후 5주 간격으로 18L를 공급했다.

최근 미생물 활용 농업인 65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24명 중 93%가 농업미생물 공급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용 시 체감 효과는 토양개량 효과 72%, 작물 생육촉진 효과 51%, 품질 향상 효과 21%(중복 선택 가능)로 나타났다. 토양개량 등 미생물 사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급 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농가의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서귀포농기센터는 내년에 농업미생물 생산량을 늘려 100여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경수 농촌지도사는 "내년 1월까지 공급 신청을 받은 뒤 2월에 미생물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교육을 이듬해 1월까지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12.4. naver.com

농업인신문 3

(서귀포신문: 2023년 12월 6일)

○ 감귤 소비촉진 이끄는 감귤박람회 성황-7면



감귤 소비촉진 이끄는 감귤박람회 성황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을 주제로 하는 제주감귤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올해 5일간 농업기계 등의 전시회와 감귤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막식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인 '춤추자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하고 조직위원장 환영사, 내빈 축사, 주제영상 상영 및 공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 기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사계절 내내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 감귤을 만들려는 농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제주감귤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선식별시스템(RFID) 기반 당도데이터 측정 등으로 당도가 체크되고 당도에 맞게 선별돼 상품화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다"며 "세계의 사랑을 받는 감귤의 재료가 되고 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6.
서귀포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12일)

○ 실증 재배 채소로 장아찌 나누다-3면

제주농업기술센터-제주음식연구회 기부 사연

실증 재배 채소로 장아찌 나누다

제주에서 농업 기술 실증을 위해 재배된 채소들을 이용한 이웃돕기 봉사 활동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제주음식연구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품종 재배 실증용 겨울채소 200kg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등 제주도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각 품종별 특성을 비교하고 재배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실증 재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면적에서 여러 작물을 한 번에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해도 판매 등이 쉽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조사가 마무리된 작물은 수확하지 않고 밭에서 그대로 파쇄, 토양 개량을 위한 퇴비화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제주음식연구회는 힘들게 재배한 작물들을 퇴비로 처리하기는 아깝다고 생각, 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했다고 생각했다.

다만 막 수확한 작물은 쉽게 상할 수 있는 만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아찌를 담기기로 하고 회원들과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제주음식연구회가 최근 품종 재배 실증용 겨울채소로 장아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모집,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에 장아찌로 만든 채소들은 재배 방법 연구와 이상 기후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 재배된 미니양배추와 콜라비, 비트 등이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한파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작물들을 수확해 제주음식연구회에 전달했고, 제주음식연구회 회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채소들을 직접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 장아찌를 담갔다.

200kg의 채소들을 다듬고 양념을 만들어 장아찌를 담그는 일은 적지 않은 일손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이 참여했음에도 작업

에만 사흘이 걸렸다.

제주음식연구회 관계자는 “실증 연구를 위한 재배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농업 전문가들이 신경 써서 재배한 매우 고품질의 작물”이라며 “이런 작물들이 퇴비로 처리된다는 것에 놀라 이렇게 이웃돕기에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제주음식연구회의 제안으로 겨울철 한파 실증을 위한 일부를 제외한 작물들을 수확해 이웃돕기에 활용하게 됐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실증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3자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12일)

○ 농업·농촌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

▲양파
 △웃거름 1차 시비=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월동 준비=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브로콜리=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12.12. 뉴제주일보 13

(제주신문: 2023년 12월 12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2023-50호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 월동준비 :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 : 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 브로콜리 : 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 2024. 1. 15.

- 신청대상 :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12.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12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월동준비=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2024년 1월 15일(월)까지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월)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12.
제주일보 11

(한라일보: 2023년 12월 12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14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 월동준비: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 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 브로콜리: 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2024. 1. 15.
○ 신청대상: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12.12.
한라일보 14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제주매일: 2023년 12월 12일)

○ 제주시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 역대급 오차에 대책 시급-1면

제주시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 역대급 오차에 대책 시급

45만여t 예상했지만 열과 등 원인으로 36만~38만t 15~20% 격차
사실상 유일 대책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를 산정 개선 필요 '목소리'

예년과 다른 강수로 인해 제주도내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이 역대급으로 빗나간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 취재 결과 45만여t으로 예상되던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현재 36만~38만여t으로 역대급(15~20%) 오차를 보일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추수직전 잦은 비날씨와 태풍(찬투)의 영향 등으로 인한 열과 발생이 높았던 2021년의 6% 차이(예측 50만여t, 실제 47만여t)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2.12. 제주시농업기술원은 올해

생산량이 예상량과 최대 격차를 보인 이유로 예년과 다른 패턴의 강수로 인해 열과 피해가 많았던 점을 들었다. 서귀포의 경우 올해 생산량이 많은 해인데 열과 피해가 많아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도 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감귤 열과는 보통 2~3% 정도로 (피해 규모를) 잡는데 올해의 경우 토심이 얇은 땅에서 열과 피해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도 열과 현상이 심한 편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보고에 따르면 6% 차(50만700t→47만1000t)에 그쳤다.

문제는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농업에 가장 결정적인 날씨를 예측하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조차도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빗물을 너무 머금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감귤농가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보상을 문제로 농가들의 가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회의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감귤에 대해 잘 모르는 손해사정사를 보내 피해 조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가 늦어지다 보니 피해를 산정이 낮고, 보상률도 낮아 감귤농가에서 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목표 피해를 정해서 사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요구를 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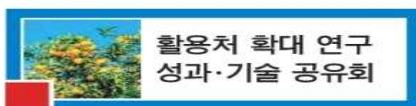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면서 "도에서 최근 보험사를 찾아 얘기하면서 보험사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내 감귤 농가에서는 자기부담비율 20% 조항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커도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제기해 왔다. 조문호 기자

(제민일보: 2023년 12월 12일)

○ 감귤박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촉각-3면

감귤박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촉각



활용처 확대 연구
성과·기술 공유회

매년 부산물 15만t 발생
폐기비용만 수십억 추산
악취저감 미생물제 개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순환농업' 구조를 형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에서만 매년 15만t 가량 발생하는 감귤박의 새로운 활용처를 모색하면서다.

제주도는 11일 국립농업과학원 주최로 '감귤 가공부산물 자원화 성과공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12.12.감귤부산물 자원화 및 현 제민일보 3개발'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화 감귤연구소 연구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매년 15만t의 감귤부산물이 발생하면서 폐기 감귤 및 가공처리에 따른 감귤부산물 수용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산지폐기의 경우 소각, 온실가스,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 위해 요인으로 꼽히고, 산지폐기 지원금과 처리비용만도 매년 수십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개발공사 역시 연간 2억원씩 적자를 지속하면서 누적적자 7억5000만원을 기록하고 가공생산을 종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감귤 부산물 활용은 단미사료 등에 한정돼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연구진은 기능성 포장소재, 탈리액 활용 탈취소재, 친환경 토양자재 등을 중심으로 활용처를 넓히는 방향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감귤박의 고형연

료화를 위해 바이오매스 적합성 평가를 거쳤으며 고형연료 전처리 조건을 구명했다.

또 감귤 탈리액에 기반한 악취저감 미생물제 제조 공정을 확립했으며, 탈리액의 성분특성과 환경위해 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감귤 탈리액 미생물제에 대한 축산분뇨 유래 인축위해성 악취저감 효과를 연구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암모니아 농도를 75%, 황화수소 99%, 메틸아민 75%를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실제 돈사 분뇨 저장조내 악취저감 효과를 10주에 걸쳐 검증한 결과 양돈장에서는 처리 6주후 황화수소 농도를 99.9%, 처리 8주후 암모니아 농도를 88.1% 저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육돈사에서는 무처리 대비 암모니아는 31.3%, 황화수소는 53.6%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수환 기자

(제주일보: 2023년 12월 12일)

○ 월동채소 가격 하락 지속 우려 道,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나서-6면

월동채소 가격 하락 지속 우려 道,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나서

재배 면적 10% 자율 감축·분산 출하 등 추진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올해산 월동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2023~2024년산 주요 월동채소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도내 월동무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0ha 줄어든 5424ha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면적이 당근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정면적(4500ha)을 웃돌고 있다.

당근은 1320ha로, 전년(848ha)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태풍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들의 기대 심리로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양배추는 1565ha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육지부(전남 무안·고흥 등)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00ha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브로콜리는 수확 작업 기계화 등으로 평년보다 14% 감소한 1292ha, 마늘은 농가 고령화와 낮은 기계화율 등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1175ha로 예측됐다.

양파는 지난해 가격 상승과 대체재(마늘)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15ha로 예상됐다.

수입 동향을 보면 당근과 양파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산지가격 하락과 국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입 물량이 늘고, 마늘은 중국 산지가격 상승과 국내 생산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수입 물량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월동채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는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 10% 자율 감축 운동과 생산량 10% 자율 폐기 운동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공 유도 및 일정 물량 저장(산지 매취 등) 후 분산 출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내·외 소비 판촉활동을 강화해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수급 안정 노력에도 시장가격이 목표관리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차액 보전 등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

진유한 기자

12.12.
제주일보 6

(제주일보: 2023년 12월 12일)

○ 농업 생산자와 식품기업 동반성장 성과-3면

농업 생산자와 식품기업 동반성장 성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가공용 농산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농업 생산자와 식품기업 간 동반성장 기회를 제공,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농업과 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과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두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식품기업과 연계해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도내 소재 생산자 단체(조합, 영농조합법인)에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 대상(규모)은 다섯 농가 이상 생산자단체여야 한다. 이 단체는 식품·외식업체 또는 제3자(지역농협 등),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법인(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교육 및 컨설팅(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품질 관리(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영농환경 개선(농자재 및 영농 폐기물 등 영농폐기물 처리, 재배 시설물 등 관리, 농약·농자재 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에 참여한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이 지난달 16일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업과 기업 연계 강화 사업으로 상생 협력

안정적인 판로 확보·소득 증진에 기여 효과

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요), 장비·시설 임차·관리비(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기타(협의회, 간담회, 체험 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이다.

지원은 생산자단체당 최대 4000만원 이내(자부담 20%)다.

다섯 농가 이상이 참여한 생산자 단체는 2000만원 이내, 10농가 이상이면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분야 지원대상 요건은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계약유형은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은 필수다.

거래금액은 지원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0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

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액이 2회차 대비 3회차 기준 30% 이상 증가 시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신제품개발(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개발 위탁비 등의 비용), 판촉·홍보(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시설·장비 임차 등이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이다.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의 50%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상생해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일보 공동기획〉

12.12.
제주일보 3

(제민일보: 2023년 12월 12일)

○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감귤산업-15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감귤산업

제민포럼



김 용 호
비상임 논설위원

■ 창의를 주도적 생각해야

사회를 창의적 기풍이 작동하도록 추동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를 기풍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돼 감귤산업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제민일보 15

감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이 감귤을 수확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은 흐뭇하다. 그런데 어딘가는 허전하다. 수확량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생산량이 적다보니 일손이 남아돌아 감귤수확을 도와 주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수집상들은 때를 놓칠세라 이미 계약해 확보된 감귤을 수확하느라 바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수확량이 너무나 감소해 손익분기점을 밑돌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희비가 얼굴 표정에 어른거린다.

일찍 발매기거래가 시작됐지만 2차 생리낙과가 심해 열매가 너무 커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농업인과 수집상간에 나돌았다. 게다가 열과가 발생하자 서로 긴장해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가격할인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장마기에 강우량이 많아서였던지는 모르지만 가을에 일조가 많았고, 강우량이 매우 적어 품질향상에 이상적인 계절이 조성돼 품질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 아닌 이변을 낳게 됐다. 강우량이 적은 것이 바람직스럽기도 했지만 9월 태풍이 내습하지 않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

후반기 기상환경은 감귤생육에 매우 적합했는데 문제는 극조생 유라실생에서 발생했다. 여름 폭염과 가을 고온 환경은 과육성숙을 촉진시켜 생육기간이 짧아지는데다 착색은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호흡작용이 왕성해 산(酸)은 호흡기질로 소모되기 때문에 산도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산이 0.7% 이하가 되면 당도도 덩달아 호흡기질로 소모돼 기일이 다소 지체되거나 강우 또는 관수에 의해 맹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하할 수 없다. 과육이 선숙되고 과피는 후숙되는 이런 품종특성 때문에 산도가 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육이 성숙했다면 푸른 햇과일로 출하돼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극조생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를 홍보해 농업인을 계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제도권에서는 오히려 종래 감귤조례를 근거로 착색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상품성을 훼손시키고 유통질서를 혼란시켜 판매장에서 농업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한다.

감사당국은 이런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하튼 감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 국가수준은 사실 개인과 사회, 국가가 가진 생각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의 높이가 시선의 높이를 결정하고 시선의 높이가 활동의 높이를 결정하며 활동의 높이가 감귤산업의 수준을 결정한다. 결국 생각의 높이가 감귤세계의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 하기로 효율성을 더 이상 높일 수 없고, 그만큼 이익창출이 어렵다. 이제 감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을 보다 선진적 단계로 상승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하는 생각의 높이에서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 사회를 창의적 기풍이 작동하도록 추동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창의를 기풍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돼 감귤산업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전 제주감귤농협조합장>